

태권도 품새 선수의 열정, 승부근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반은아*(백석대학교 겸임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태권도 품새 선수의 열정, 승부근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규명하여 품새 경기 발전에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16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 338명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채택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열정은 승부근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열정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승부근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면 열정과 승부근성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 변인으로 경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수의 기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향후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선수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제어 : 태권도 품새 선수, 열정, 승부근성, 인지된 경기력

* baneuna@daum.net

I. 서 론

스포츠 경기에서 최상의 운동 수행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은 선수의 체력, 기술, 심리요인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최적의 상태를 이루어졌을 때이다. 그중에서 체력과 기술은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강화되고 가변성이 낮은 반면에 심리요인은 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승패를 결정짓는 강력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미정, 2017; 장익영, 안찬우, 2014; 최성민, 이동현, 2019). 이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 변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스포츠 발전에 공헌하는 길이다.

도수공방(徒手攻防)의 전통 무예에서 서로 경쟁하는 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인 겨루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인 품세에 이어서 올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격파가 있다. 그중에서 품세 경기는 정해진 기술체계 안에서 정확도와 표현력 점수를 합산하여 기술적 우위를 겨루는 비접촉 경기로 선수의 심리요인이 경기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때 경기상황에 따라 변하는 심리요인 못지않게 훈련과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심리상태와 기질적 성향도 경기력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

다양한 심리 변인 가운데 품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열정 없이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품세 선수의 열정, 승부근성, 경기력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실제 선수의 경기력 수준을 정량화하기 어려우므로 두 변인 간의 경기력은 선수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고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인지된 경기력을 측정 도구로 활용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열정은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는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강력한 내적 동기(Vallerand, Blanchard, Mageau, Koestner, Ratelle, Leonard,

Gagne, & Marsolais, 2003)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열정이 넘치는 선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동기와 성취 욕구를 자극하여 경기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석일, 임낙철, 2010; 남광우, 임요준, 김병주, 2018; 소영호, 2015; 소영호, 2016; 송민규, 장세용, 정동혁, 최봉준, 2012)

또한, 열정만큼이나 강한 기질적 특성을 가진 승부근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한다(김범준, 2017; 김중현, 반은아, 2020). 동작의 결점 없이 완벽한 기술 수행을 위해 반복된 훈련을 이겨내야 하는 선수에게 품새에 대한 열정과 승부에 대한 강한 의지는 매우 중요한 심리 기제이다. 이에 대해 투기 종목의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 두 변인 간의 긍정적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으나(김보겸, 김영훈, 이재주, 2017; 오영택, 양명환, 2017) 종목의 성격이 다른 품새 경기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수에게 탁월한 신체 능력은 경기 수행력을 높이는데 필수조건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신체조건이 우수하더라도 의지가 박약하거나 끈기가 부족한 선수의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 규명되었으며(김경엽, 박정호, 2016; 김영미, 한혜원, 2013; 김중현, 반은아, 2020; 박정호, 김재요, 정성현, 2016; 박정호, 2017; 이정국, 2015; 천성민, 2021), 품새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이승행, 2017).

전술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선수를 대상으로 열정, 승부근성, 경기력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에서 각각의 변인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지만, 세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가 없다고 해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거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태권도 품새 경기가 비약적 발전을 통해 향후 올림픽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심리 기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중에서 열정과 승부근성은 선수의 기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뿐

만 아니라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선수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품새 선수의 열정, 승부근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규명하여 품새 경기 발전에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태권도 품새 선수의 열정과 승부근성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9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16회 대한태권도협회 장배 전국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를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으로 370부의 설문을 받아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32부를 제외한 33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73	80.8
	여자	65	19.2
학년	중등부	103	30.5
	고등부	137	40.5
	대학부	98	29.0
입상실적 (17~18년)	없음	117	34.6
	1~2회	100	29.6
	3~4회	70	20.7
	5회 이상	51	15.1
합계		338	100.0

2. 조사 도구

열정을 측정하기 위해 Vallerand, et al., (2003)이 개발한 척도를 유진, 정꽃님(2008)이 한국형으로 제작하고 송남정(2019)의 연구에서도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2개의 하위요인인 조화 열정 6문항과 강박 열정 7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승부근성은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2009)이 개발하고 천승민(2021)의 연구에서도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2개의 하위요인인 승부욕 5문항, 자신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지된 경기력은 원영인, 심영균, 김지태(2018)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3문항을 포함한 3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내용

항 목	구성 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학년, 입상 실적	3
열정	조화 열정(6), 강박 열정(7)	13
승부근성	승부욕(5), 자신감(5)	10
인지된 경기력	경기력(6)	6
총 문항		32

3.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는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의 고유값(eigenvalue) 1.0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직교회전의 varimax를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하였다.

검증결과 KMO(Kaizer-Meyer-Olkin)값은 .934,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유의수

준은 $p<.001$ 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치는 .6 수준에서 강박열정, 조화열정으로 추출되었으며, 71.306%의 누적 설명력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문항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열정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번호	문 항 내 용	성 분	
		강박 열정	조화 열정
1	태권도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기 힘들다.	.879	.238
2	태권도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879	.230
3	정신적으로 태권도에 의존하고 있다.	.872	.221
4	태권도에 거의 집착하고 있다.	.836	.246
5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해 운동을 멈출 수 없다.	.823	.267
6	내 인생에서 태권도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763	.307
7	태권도 연습결과에 따라 기분 상태가 좌우된다.	.673	.249
1	나에게 기억에 남을 많은 경험을 준다.	.218	.824
2	태권도를 통해 얻은 경험은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	.268	.822
3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	.223	.794
4	나의 삶에서 다양한 활동과 조화를 이룬다.	.272	.788
5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225	.774
6	태권도에 대한 나의 열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244	.738
	고유값	5.073	4.197
	분산(%)	39.024	32.282
	누적(%)	39.024	71.306
	Cronbach's α	.939	.907
	KMO= .93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chi^2 = 3390.952$, $df = 78$, $p = .000$)		

승부근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검증결과 KMO(Kaizer-Meyer-Olkin)값은 .913,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유의수준은 $p<.001$ 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치는 .6 수준에서 승부욕, 자신감으로 추출되었으며, 68.018%의 누적 설명력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문항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승부근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번호	문 항 내 용	성 분	
		승부욕	자신감
1	모든 경기에서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867	.298
2	경기에서 이기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812	.343
3	중요한 경기일수록 이기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다.	.793	.308
4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770	.312
5	중요한 경기일수록 승부욕이 더 강해진다.	.742	.296
1	상대가 두렵다(변환).	.184	.767
2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82	.720
3	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240	.712
4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368	.685
5	나 자신을 믿고 훈련에 임한다.	.519	.639
	고유값	3.825	2.977
	분산(%)	38.245	29.773
	누적(%)	38.245	68.018
	Cronbach's α	.910	.827
KMO = .91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chi^2 = 2150.173$, $df = 45$, $p = .000$)			

표 5. 인지된 경기력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번호	문 항 내 용	성 분
		경기력
1	나는 예전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866
2	나의 경기력은 만족할 만하다.	.859
3	나는 정상급의 경기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855
4	나는 항상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835
5	나는 최상급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11
6	나의 경기 실력은 상승세이다.	.804
	고유값	4.219
	분산(%)	70.319
	누적(%)	70.319
	Cronbach's α	.915
KMO = .88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chi^2 = 1373.797$, $df = 15$, $p = .000$)		

인지된 경기력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Kaizer-Meyer-Olkin)값은 .881,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유의수준은 $p < .001$ 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치는 .8수준에서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70.319%의 누적 설명력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문항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한편,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6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도출한 결과에서와 같이 Cronbach's α 값이 열정 .907~.939, 승부근성 .827~.910, 인지된 경기력 .915로 확인되어 각 요인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하여 측정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넷째,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요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요인 값은 .486~.718의 수치로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8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계수, 2004).

표 6.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강박 열정	조화 열정	승부욕	자신감	인지된 경기력
강박 열정	1				
조화 열정	.559**	1			
승부욕	.486**	.678**	1		
자신감	.503**	.665**	.714**	1	
인지된 경기력	.718**	.506**	.521**	.562**	1

** $p < .01$

2.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열정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표 7. 열정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변수	B	SE	β	t	p
승부욕	(상수)	1.143	.187		6.158	.000
	강박 열정	.118	.036	.158	3.309	.001
	조화 열정	.638	.052	.589	12.311	.000
$R^2 = .476, F = 151.482^{***}$						
자신감	(상수)	.866	.197		4.391	.000
	강박 열정	.151	.038	.193	3.998	.000
	조화 열정	.636	.055	.557	11.571	.000
$R^2 = .467, F = 146.497^{***}$						

** $p < .01$ *** $p < .001$

열정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승부욕은 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 열정($\beta = .589, t = 12.311, p < .001$), 강박 열정($\beta = .158, t = 3.309, p < .01$)에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47.6%($R^2 = .47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F = 151.482, p < .001$). 또한,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열정의 하위요인인 조화 열정($\beta = .557, t = 11.571, p < .001$), 강박 열정($\beta = .193, t = 3.998, p < .001$)에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46.7%($R^2 = .467$)로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F=151.482, p < .001$).

2) 열정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표 8. 열정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변수	B	SE	β	t	p
	(상수)	.613	.228		2.687	.008
인지된 경기력	강박 열정	.612	.044	.633	14.004	.000
	조화 열정	.214	.064	.152	3.372	.001

$R^2 = .531, F=189.144^{***}$

** $p < .01$ *** $p < .001$

열정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정의 하위요인인 강박 열정($\beta = .633, t=14.004, p < .001$), 조화 열정($\beta = .152, t=3.372, p < .01$)에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53.1%($R^2 = .53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F=189.144, p < .001$).

3) 승부근성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표 9. 승부근성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변수	B	SE	β	t	p
	(상수)	.501	.262		1.916	.056
인지된 경기력	승부욕	.316	.082	.243	3.841***	.000
	자신감	.481	.078	.389	6.158***	.000

$R^2 = .346, F=88.261^{***}$

*** $p < .001$

승부근성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beta = .481, t=6.158, p < .001$), 승부욕($\beta = .316, t=3.841, p < .001$)에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은 34.6%($R^2 = .34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으로 확인되었다($F=88.261, p < .001$).

IV. 논 의

1. 열정이 승부근성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품새 선수의 열정은 승부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정의 하위요인인 강박 열정과 조화 열정 모두에서 긍정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김보겸, 김영훈, 이재주(2017)의 연구와 일치하며, 오영택, 양명환(201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우수한 선수일수록 운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모든 선수가 목표달성을 위해 힘든 훈련을 참아내고 경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데 이때, 열정은 강한 동기와 의지를 표명한다. 특히 조화 열정은 훈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율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는 승부근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는 반면에 강박열정은 외부적인 압박과 통제에 의한 타율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상과 종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모두 승부근성에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품새 종목의 특성상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고 잘못된 동작을 즉각 수정해줘야 하는 지루하고 고된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자율성과 타율성 모두 필요하다는 결과로 보인다. 즉 선수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 자체를 즐기는 자율적 분위기와 행동을 지향하되 지도자는 적절한 통제와 압박을 통해 승리에 대한 의지를 자극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열정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품새 선수의 열정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정의 하위요인인 강박 열정과 조화 열정 모두에서 긍정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김석일, 임낙철(2010), 소영호(2016), 송민규 외 3인(2019)의 연구와 일치하며, 소영호(2015), 송남정(201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도출된 결과에서 강박 열정($\beta = .633, t=14.004, p<.001$)이 조화 열정($\beta = .152, t=3.372, p<.01$)보다 인지된 경기력에 높은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는데 이는 같은 종목으로 연구를 진행한 송남정(2019)의 논문에서도 조화 열정이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두 연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긍정적 심리상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선수가 자신의 열정적인 활동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과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조화 열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선행연구(김보경, 김영훈, 이재주, 2017; 김석일, 임낙철, 2010; 소영호, 2016; 송민규 외 3인, 2019; 오영택, 양명환, 2017)와 달리 품새 선수는 강박 열정이 중요한 심리요인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 송남정(2019)의 연구에서 논의가 빠져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품새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품새는 훈련 자체가 정적이며, 끊임없이 자신과 싸움을 통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동작의 정교함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자칫 타성(mannerism)에 빠지기 쉬운 까닭에 선수의 강박 열정이 조화 열정보다 인지된 경기력에 높은 인과관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승부근성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품새 선수의 승부근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부근성의 하위요인인 승부욕과 자신감에서 긍정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김미정(2017), 김중헌, 반은아(2020), 박정호 외 2인(2016), 박정호(2017), 이승행(2017), 한승용(2013)의 연구와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승부에 대한 의지와 집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겨루기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정국현(2003)은 승부근성이 약한 선수는 소극적 태도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승부근성이 강한 선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세가 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품새 경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품새 경기는 첫 번째 품새를 마친 후 점수가 바로 표출되기 때문에 낮은 점수의 선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때 두 번째 품새에서 전세를 역전시켜 승리하겠다는 선수의 강한 승부근성은 경기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최근 입상권에서 승부를 겨루는 선수 간의 점수 차는 소수점 세 자리에서 승패가 가려질 만큼 경기력 수준이 평준화되었다. 즉 품새 경기는 체력과 기술보다 선수의 심리 기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도자는 선수의 기술 훈련에만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심리기술훈련을 통해 경기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강화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태권도 품새 선수의 열정, 승부근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규명하여 품새 경기 발전에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16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 338명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채택한 후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열정은 승부근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열정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승부근성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열정과 승부근성은 경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수의 기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향후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선수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과 한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비교에 따른 결과를 활용한다면 연령별 심리 기제를 이해하고 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선수 관리 차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엽, 박정호(2016). 배드민턴 선수의 승부근성과 스포츠집중력 및 인지된 경기력. **한국능력개발지**, 18(1), 67-78.
- 김계수(2004).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학지사.
- 김미정(2017). 유도선수들의 운동능력민음과 인지된 경기력 관계에서 승부근성 및 스포츠자신감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무도학회지**, 19(2), 35-50.
- 김보겸, 김영훈, 이재주(2017). 중고등학교 유도선수들의 열정이 승부근성과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99-109.
- 김범준(2017). **복싱선수의 질실함이 경기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운동몰입과 승부근성의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석일, 임낙철(2010). 대학골프전공자의 창의성과 열정 및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9(3), 271-280.
- 김영미, 한혜원(2013).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과 자기관리,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1), 163-177.
- 김중현, 반은아(2020). 태권도 시범선수의 팀 응집력, 승부근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무예학회**, 14(2), 169-185.
- 남광우, 임요준, 김병주(2018). 유도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의사소통유형과 운동열정 및 운동성과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0(4), 89-101.
- 박정호, 김재요, 정성현(2016). 배드민턴 선수의 승부근성과 인지된경기력의 관계에서 운동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503-515.
- 박정호(2017). 유도선수의 승부근성과 운동몰입, 인지된경기력의 구조관계 검증. **한국스포츠학회지**, 15(1), 575-587.
- 소영호(2015).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활력, 열정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2, 575-586.
- 소영호(2016).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코치-선수관계와 운동열정 및 인지된 경기력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5(5), 105-115.
- 송남정(2019). 품새선수의 스포츠 자신감이 운동열정,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예학회**, 13(3), 203-222.
- 송민규, 장세용, 정동혁, 최봉준(2012). 한국 태권도 선수의 열정이 스포츠 정서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14(2), 99-110.
-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2009). 국내 정상급 선수를 위한 승부근성 검사지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2), 755-772.
- 오영택, 양명환(2017).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열정이 운동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승부근성의 매개효과 검증. **해양스포츠연구**, 7(2), 37-49.
- 원영인, 심영균, 김지태(2018). 대학 태권도선수의 은퇴불안이 운동몰입과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국기원태권도연구**, 9(2), 105-125.
- 유진, 정꽃님(2008). 무용 열정의 이론론적 모형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163- 175.
- 이승행(2017). 태권도 품새 선수의 승부근성이 자기관리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4), 229-239.
- 이정국(2015). 대학 운동부 선수가 지각하는 코칭리더십과 승부근성 및 운동성과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3(3), 29-40.

- 장익영, 안찬우(2014). 단체종목 운동선수들의 승부근성과 자기조절동기 및 팀 응집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345-358.
- 정국현(2003).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에 관한 질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천성민, 이동현(2019).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과 긍정심리자본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6, 173-182.
- 천성민(2021). 운동선수의 심리기법과 긍정심리자본, 승부근성,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에서 심리기술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9(2), 687-699.
- 한승용(2013).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및 승부근성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대학원.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 Vallerand, R. J., Blanchard, C. M.,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F., Leonard, M., Ganer,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756-767.

ABSTRACT

Relations of passion, fighting spirit,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Taekwondo Poomsae players

Ban, Eun-A(Baekseo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turing excellent athletes and improving their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ion, fighting spirit,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Taekwondo Poomsae athlete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fter adopting the questionnaire of 338 athletes who participated in the 16th National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held from August 12 to 15, 2019, the frequency was used using the PASW/WIN 21.0 program.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passion has a positive (+) effect on winning stamina. Second, pass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perceived performance. Third, it was found that winning streak had a positive (+) effect on perceived performance. Summarizing the results, passion and winning streak are strong factor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Key words: Taekwondo Poomsae Athletes, Enthusiasm, Tenacity, Perceived Performance

논문투고일 : 2022.09.28.

심사일 : 2022.10.22.

심사완료일 : 2022.11.19.